법무매거진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홍기태 '김경수 2심 변호인'… 대법 '코드인사' 논란

법조인 동정

– 로펌 변호사 임명은 처음

대법원이 지난 1월 29일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에 홍기태(58세, 사법시험 제25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법원 내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2심 변호인이기도 하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사법제도 등을 연구한다. 대법원 산하 기관 중 사법연수원 다음으로 큰 곳이다. 주로 대학교수들이 원장을 맡았다. 대형 로펌 변호사가 원장에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그의 '진보 이력'이 이번 인선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3년 퇴임했다. 김 지사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1심 유죄판결 이후 합류했다.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추진단 산하에서 팀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추진단 단장은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었다. 홍 변호사의 아내는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참여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이던 2018년 당시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 판사들을 탄핵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표) 법관들의 충정'이라고 했었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여러 우려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 실세를 변호했던 사람을 공정한 연구가 생명인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라고 했다. 대법원은 "정상적 공모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인사'라고 했다.

대법원이 2018년 법원행정처 기능을 줄이겠다며 사법정책실을 폐지하면서 사법정책연구원 기능이 한층 커졌는데, 홍 원장 임명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부임 등 '코드 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출처/연합뉴스)